

제 38 호 연구와 강의

지난 호에 이어 연구-교육(강의)의 갈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연구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강의(teaching)는 천시하는 빼놓아진 풍토는 한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미국이 원조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때 조교수가 우수교육자상을 받으면 동료들이 축하문 대신 위로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교수로 승진하기는 글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강의와 비교해 연구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풍조는 급속히 쇠락해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강의(teaching)를 잘 하는 교수나 교사가 우대받는 시대가 됩니다. 하루에 발간되는 논문이 2만편이나 되는 요즘, 새로운 지식의 추구 (연구) 만큼 중요한 일은 존재하는 지식의 응용과 통합과 전달 (즉,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대학에서의 연구는 “지식의 추구”보다는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서 인식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요즘 미국 명문대 총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비전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강의의 가치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는:

1. 대학에서 교수들이 강의에 치중해야한다는 성명서 “Scholarship Reconsidered: Priorities of Professoriate”를 세계 최고의 교육 권위자인 어네스트 보이어 박사가 출판함 (1990).
2. 스탠포드 대학이 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5년 동안 120 억원을 들이고 입학생 전담 교수 2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실시중.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1996. 5. 17.)
3. 연구중심대학인 MIT 에서 우수한 강의(teaching)를 하는 교수에게 석좌교수 지위를 부여함.
4. NSF 사상 처음으로 공학교육에 관한 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1990).
5. 원격강의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하여 “수퍼 스타” 연구 교수 (researcher)가 있듯이 돈과 명성을 동시에 얻는 “수퍼 스타” 강의 교수 (teacher)가 생겨나고 있음.

이런 예를 볼 때 한국도 조만간 강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것입니다. 물론 강의의 가치가 제대로 대우 받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직 강의에 쏟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얻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외부의 압력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일은 참으로 고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외부의 압력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스스로 자신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벽 드림

추신: “강의“는 “lecture“만을 뜻하지 않고 “teaching“ (즉 교육 활동)을 뜻합니다.

© 조벽, 1999